

岩寺洞遺蹟 編年の 새로운 視點

—서해안 빗살문토기의 발생과정과 관련하여—

이동주 (동아대학교 박물관)

I. 머리말

암사동유적은 尖底 器形을 특징으로 하는 빗살문토기 단계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30년 藤田亮策이 한국의 신석기시대 토기를 언급하면서 사용한 櫛目文土器라는 명칭¹⁾은 현재까지도 이를 한글로 고친 빗살문토기라는 용어와 함께 한국 신석기시대 토기를 통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당시 첨저 혹은 환저의 포탄형을 기본으로 하는 토기는 볼가강 상류, 오카강 유역에서 발생하여 핀란드나 중앙아시아 및 시베리아의 예니세이강 유역의 쿠라스노야루스크나 미누신스크지방에도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藤田亮策은 북유럽, 시베리아, 알래스카, 북미를 분포하는 북방 문화의 문화연쇄 과정에서 한국의 빗살문토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으며, 그 견해는 지금까지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 가운데 1970년대 조사되었던 암사동유적의 탄소연대 중에 6,230 B.P.와 같은 절대연대²⁾는 이 토기 출토유적 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 신석기유적 중 가장 이른 연대에 해당하며, 이보다 이른 단계의 특징을 보이는 지탑리나 궁산과 같은 유적을 통하여 자연히 북방전래에 대한 관점이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빗살문토기는 최북단 경계 지점에 해당하는 궁산이나 지탑리유적에서 한강유역을 거쳐 남해안지역과 동해안지역으로 확산되며, 이 일부가 일본 구주 지방으로 건너가면서 소바다식(曾畑式)토기 문화로 발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라 할 수 있다³⁾.

그런데, 우리나라 빗살문토기는 기형상의 특징을 제외한 문양의 시문기법이나 구성에 있어서 시베리아를 포함한 북방적 요소와는 차이점이 많고, 분포상으로도 청천강 이남 지역에서 남해안지역까지가 중심이며, 드물게는 일본의 북부 구주지역까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빗살문토기가 사용되던 시기는 이 주

1) 藤田亮策, 1930, 〈櫛目文土器の分布に就いて〉『靑丘學叢』2

2) 任孝宰, 1986, 〈編年〉『韓國史論』12, 國史編纂委員會

3) 최근에는 曾畑式土器의 발생이 남해안의 瀛仙洞式押引文土器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李相均, 1998, 『新石器時代の 韓日文化交流』學研文化社

변 지역이 모두 평저토기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를 북방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시켜 생각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다.

때문에 필자는 우리나라 빗살문토기에 나타나는 제반 특징을 갖춘 북방문화의 원류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관점에 대한 비판과 함께 수 편의 논문을 통하여 한반도 자체적인 발전과정을 유추한 적이 있다⁴⁾.

즉, 빗살문토기는 평저토기 문화권과 접하는 가장 北端에 위치하는 弓山이나 智塔里遺蹟을 가장 이른 단계로 보는 기존의 관점에는 층위나 상대편년 등을 통한 자체 발생적인 증거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이상 많은 의문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각 지역별 빗살문토기의 발생적 편년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중기 단계로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면서, 층위적으로 하층 단계에서 나타나는 동해안지역이나 남해안지역의 전기 압인문토기 단계와의 비교를 통하여 암사동을 중심으로 하는 빗살문토기의 발생과정을 추론하고자 한다.

II. 서해안지역 빗살문토기 문화의 양상

가장 이른 단계의 빗살문토기 유적으로 잘 알려진 대동강유역 궁산유적⁵⁾의 경우 도면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구연부에 수직으로 多齒具나 單齒具에 의한 短斜集線文樣이 다단으로 시문되고 그 아래에 압인어골문양이 나타나고 있다. 동체부에는 간격을 띄운 침선상의 종주어골상의 문양(이갈잎문)이 시문되며, 底部는 원저 내지는 굽이 없는 완만한 평저형이 함께 존재하는데, 3부위 문양구성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횡주어골문은 보이지 않고 저부에 문양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刺突押引에 의한 문양 구성과 구연부 끝 부분에 영선동식 압인어골문과 같은 것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압인문토기의 전통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탑리유적⁶⁾ 제1·2호 주거지에는 구연부 단사집선문양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대신 평행으로 시문된 자돌압인문양이 다단으로 배치되어 궁산유적과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동체부 문양으로 전형적인 縱走魚骨文이 나타나며 押引系 橫走魚骨文의 전통도 보인다. 器形에 있어서도 역시 원저 혹은 첨

4) 李東注, 1996, 『韓國 先史時代 南海岸 有文土器 研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李東注, 1997, 〈全面施文沈線文土器의 展開와 編年〉『古文化』50, 韓國大學博物館協會

李東注, 1999, 〈韓國櫛目文土器의 發生と 展開について〉『第3回 韓日新石器時代 交流會 發表論文集』

李東注, 1999, 〈빗살문토기문화의 性格〉『學術發表論文集』韓國古代學會

李東注, 2000, 〈岩寺洞 빗살문토기文化 源流에 對한 새로운 視點〉『岩寺洞先史文化의 特性』韓國先史考古學會

5) 高古학·민속학연구소, 1957, 『궁산 원시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2, 과학원출판사

6) 高古학·민속학연구소, 1961, 『지탑리 원시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8, 과학원출판사